


태안군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일 시 | 2015. 4. 3(금) 14:00~16:00
장 소 | 태안군청 대회의실
주 최 · 주 관 | **CDI** 충남발전연구원  태안군

CONTENTS

[태안군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사회 맹 천 호 태안군 기획팀장	
	좌장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전략”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대산항~룡엔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박 인 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토론자 - 1주제 : 윤영모 국토연구원 책임 연구 원 이충훈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주제 :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 구 실 장 김경태 충남발전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PROGRAM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 1부	
14:00	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	14:15	10	• 인사말씀	태안군수 충남발전연구원장
14:15	14:25	10	• 협약식(태안군 - 충남발전연구원)	태안군수 충남발전연구원장
			• 2부	
14:25	14:45	20	• 제1주제 발표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전략”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14:45	15:05	20	• 제2주제 발표 “대산항~룡엔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박 인 성 (충남발전연구원)
15:05	15:55	50	• 종합토론	진행 : 좌장 (충남발전연구원장)
15:55	16:00	5	• 정리말씀	태안군수
16:00			• 폐회	진행 : 좌장 (충남발전연구원장)

01

[태안군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전략”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전략

2015. 4.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목 차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	3
II	안면도에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	15
III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	21
IV	태안군의 대응전략 -----	26
V	결론 및 정책건의 -----	31

•본 자료의 여건분석과 대응전략은 안면도종합발전계획(1999년)
보고서를 활용하였음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접근성 및 주변여건

- 현재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원창리를 경유하여 안면도로 일방향으로 접근
- 향후 보령-안면도 연육교 건설시 양방향 통행으로 접근 가능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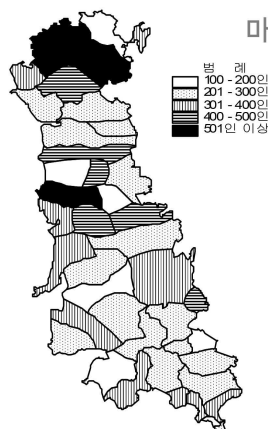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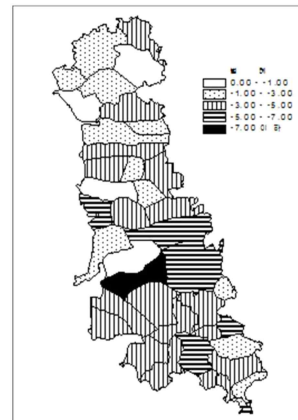
마을별 인구분포 규모 및 인구변화

- 마을별 인구분포는 안면도의 북쪽 지역에 인구분포가 집중
- 마을별 인구변화는 오히려 안면도 남쪽지역에 집중

마을별 인구분포 규모



마을별 인구변화



4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생활서비스 및 상업시설, 관광서비스 시설 분포

- 생활서비스 및 상업시설의 분포가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분리되어 있음
- 관광서비스 시설 분포는 대부분 서쪽지역에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생활서비스 및
상업시설 분포



관광서비스 시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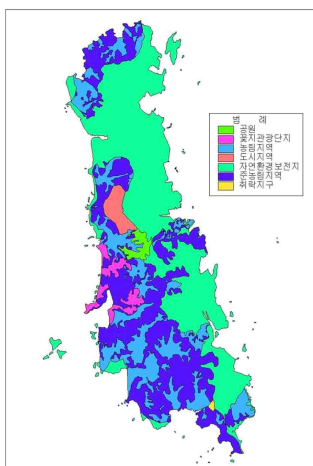
5

2.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토지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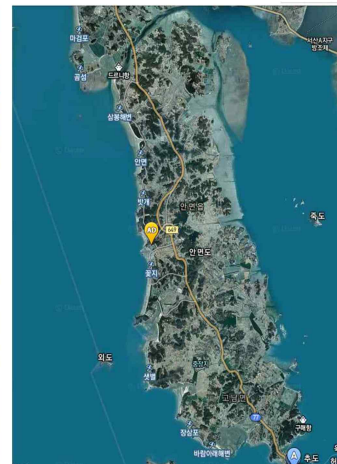
-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산림(공원)과 농림지역이 도로변을 차지



토지이용현황



위성영상(1999년)



위성영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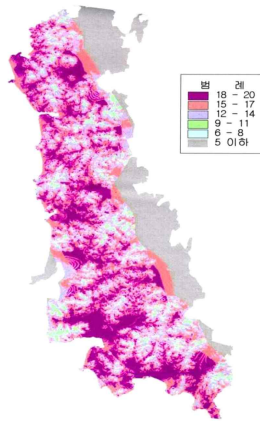
6

2. 안면도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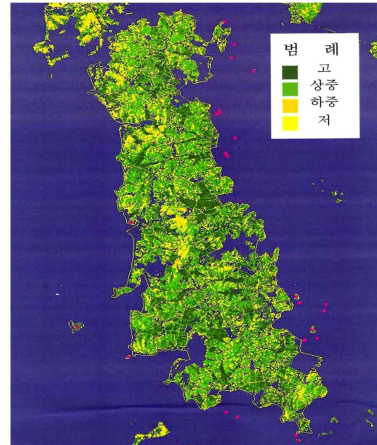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안면도개발가능지 평가와 식생지수도

- 개발가능지는 동서해안내륙에 있고, 식생은 일부지역 외에 안면도 전 지역이 양호함



안면도개발가능지



안면도 식생지수도

7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역사문화 자원(지정기념물)

기념물 명	지명년 도	위 치	개 요
굴거리나무	1962	안면읍 승언리 2구에 50여 그루 현존	.안면읍 중장리 산 11번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나 멸종 .천연기념물 제137호
모감주나무 군 락	197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번지	.중국이 원산지인 3m내외의 관엽관목 300여주 9,567m ² .천연기념물 제138호
안 면 내파수도	1987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8구	.동백나무 군락지 .전국에서 유일한 200여 미터의 球石 방파제 .도지정 기념물 제64호



8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식생(자생, 수생, 천연기념품 및 희귀식물)



구분	수종	자 생 지	비 고
목본	모감주나무	·안면읍 승언리 방포해변에 자생군락 이름	천연기념물 제138호(1971.3.1)
	굴거리나무	·안면읍 중장리 산11번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나 멸종되었음 ·안면읍 승언리 2구에 50여 그루 현존	천연기념물 제137호(1962.12.7)
	읍나무	·빙구나무라 부르며 두산목장 주변에 자생	
	왕팽나무	·안면도 해변가, 황도마을 대경목 현존 ·독립수의 형태로 남아 있음	
	두릅나무	·안면해수욕장 주변부에 20 ~ 30주 군락	
	왕곰버들	·안면읍 중장리 큰골(큰바탕, 육개)에 자생	
초본	새우난초	·휴양림 전망대 계곡부에 군락형성	불법채취 대책
	사철난초	·휴양림 전망대 계곡부에 분포	"
	보춘화	·안면도 산림내 고루 분포	"
	먹년출	·안면도 휴양림내 소규모 생육	희귀식물, 멸종위기종
	물옥잠	·천수만 지역 농경지에서 대규모 군락 형성	
	어리연꽃	·서해안 지역 저수지에 고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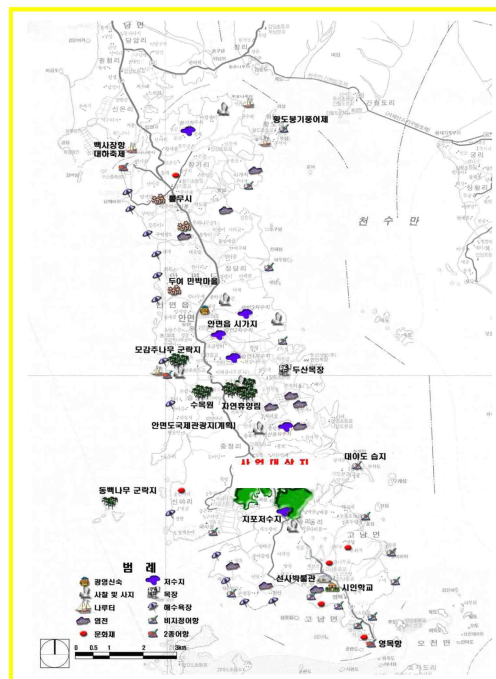
9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관광자원 분포 현황

- 안면도 전지역에 다양하게 분포
 - 자연휴양림과 꽃지 등 안면도 중심에 위치
 - 안면송과 습지 등 생태자원 풍부
- 해안관광자원 풍부
 - 서쪽 해안 해수욕장 입지 : 백사장, 삼봉, 꽃지 등
 - 향포구도 서쪽 입지 : 백사장, 방포항 영목항



10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안면도 유형별 관광자원 현황



자원유형	자 원 명	특 징	비 고
해수욕장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밧개, 방포, 꽃지, 샛별, 운여, 장삼, 장돌, 바람아래	서쪽해안을 중심으로 발달	기반 및 편의시설 미비
항포구	백사장, 방포, 황포, 영목, 독개, 황도, 우포, 가경주	백사장, 방포, 영목은 2중어항이나 대부분 소형항포구	유어 및 수산물시 석
집단시설지구	백사장	백사장항 서쪽에 조성중	안면도 관광거점
염 전	안면, 천우, 동명, 삼부, 두산, 안중	일부염전에서만 소금생산	체험 및 학습장소
사적지	망수대, 쌀썩은여, 조금막터, 상여	역사문화 자원	생태·역사관광지 로 개발
절(寺趾)	방포사지, 창기절골사지, 중장절골사지, 탑골사지, 동부터사지, 귀곡사지, 송풍사, 법정사	안면도 일원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있는 자원들임	체계적인 조사 미흡

11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자원유형	자 원 명	특 징	비 고
해안경관지	삼봉, 방포, 꽃지, 백사장, 영목, 조기노루목	외북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감상포인트	낙조나 관광포 인트로 활용
목 장	안면두산목장, 한국야쿠르트목장	염전, 소류지 등과 인접	생태관광자원
습지	내륙	안면1·2·3, 창기, 미포, 먹뱅이, 그물목, 춘산골, 지루, 신야, 중장수로, 지포, 누동, 기골	농업용이나 습지화되고 있음
	연안	갯벌, 대야도습지	천수만쪽을 중심으로 발달
섬	내파수도(외파수도), 외도, 죽도, 토끼섬, 두지도, 닭섬, 곰섬 등	대부분 무인도임	갯벌체험
기암괴석	거북바위, 할미·할아비바위, 남주바위, 등대석, 꽃바위, 둔두절암	향포구나 해수욕장 인근에 입지	바다낚시
민박마을	틀무시, 도여, 장돌포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입지	사진촬영, 낚시
기념물	모감주나무 군락, 동백나무군락, 구석방파제	방포해안, 내파수도에 입지	방문객을 위한 숙박중심 기능 수행
			체계적 관리미흡

12

1. 안면도 여건분석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자원유형	자 원 명	특 징	비 고
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산림전시관, 수목원, 야영장, 숲속의 집, 삼림욕장 등)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	휴양 및 숙박, 관람기능 수행
이벤트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대하축제, 남사당놀이, 안면도 현대예술축제(무용, 전시), 사진촬영, 흥송축제, 젓갈축제, 해변시인학교, 황도봉기풍어제, 여름시인학교	대부분 여름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개최	대부분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
먹거리	대하, 우럭회, 해산물회, 와그락탕, 낙지전골, 조개탕, 동동주	해산물을 중심으로 발달	먹 거 리 에 대 한 정보부족
특산물	간척지 쌀, 고추, 보리, 마늘, 생강, 까나리액젓, 한우	안면도 주민의 주요 소득원	종합판매장 부족
전 설	당산, 젓개, 쌀썩은여, 노루뎡, 국사봉, 말운들, 팔학굴, 할미·할아비바위, 각시터, 웅천굴, 구렁재, 삼봉, 용해, 창터와 불탄개	안면도와 관련된 전설로 학생들과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학습장소로 활용가능	전 설 내 용 등 에 대 한 안내 판 설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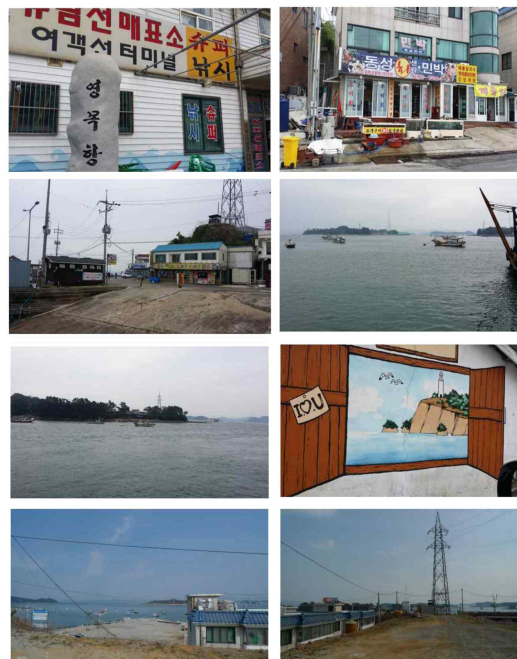
13

2. 영목항 여건

I. 안면도 및 영목항 주변여건분석

영목항 현황

- 위치 :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
 - 안면도의 남쪽끝 항구
 - 까나리액젓이 유명
- 수산업 발달
 - 바지락, 소라, 고동과 우럭, 농어 등 어족자원 풍부
- 지명 : 예전에는 영항이라 불림
 - 1995년 10월 30일 지방어항으로 지정
 - 보령 대천항과 정기 여객선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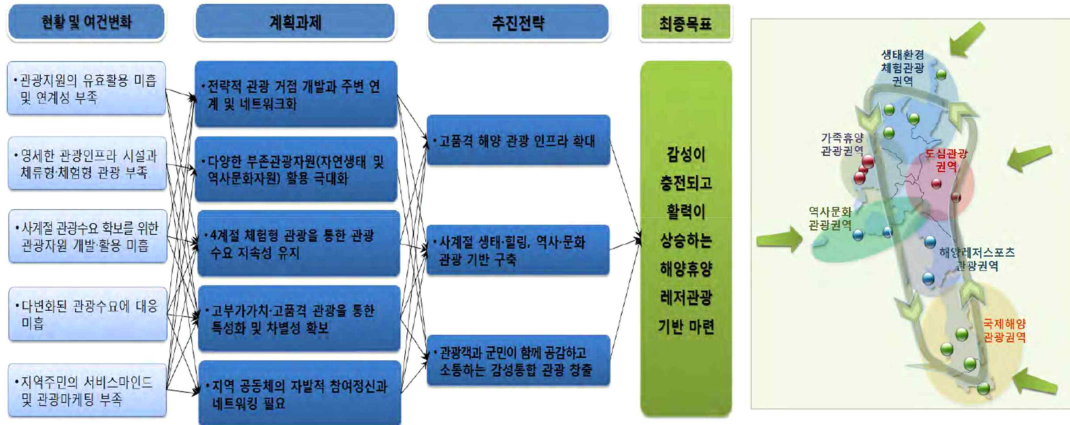
14

1.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2014)

II.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관광 문화부문 추진과제 및 목표

- 국제해양관광권역(안면도) : 고남 수변문화 해안마을 조성사업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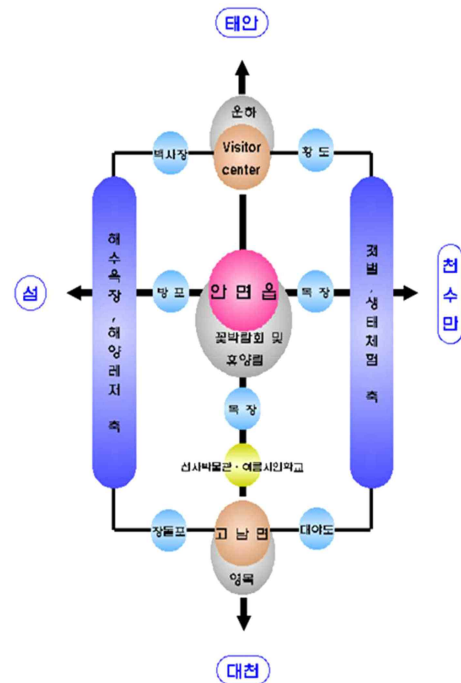


15

2. 안면도 종합발전계획(1999)

II.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안면도 개발구상



16

3. 영목항 해양관광 거점사업(2015)

Ⅱ.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영목항 나들목 해양친수 테마공원 조성 등

- 테마공원, 랜드마크, 방문자센터, 수변탐방로, 해안도로, 해변탐방로 등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10,000		700		4,000		4,000		1,300
실시설계비	1식	700	1식	700						
테 마 공 원	4000㎡	3,000			3000㎡	2,000	1000㎡	1,000		
랜 드 마 크	1식	1,000				1,000				
방문자센터	1식	1,000				1,000				
수변탐방로	1.0km	500					1.0km	500		
해 안 도 로	5.0km	2,300					3.0km	1,500	2.0km	800
해 변 탐 방 로	2.0km	1,500					1.5km	1,000	0.5km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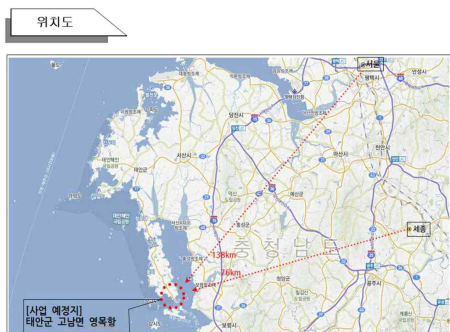
17

3. 영목항 해양관광 거점사업(2015)

Ⅱ.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 영목항 등 고남면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거점사업 추진 예정

사업대상 위치도



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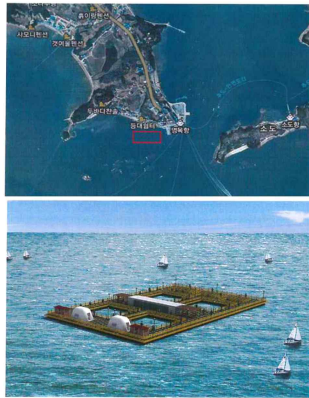
18

4. 해양수산과 계획(2015)

Ⅱ.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낙시터, 해양관광명소, 영목항 국가항 승격 등

- 해양레저 친수 낙시터 조성 : 해상가두리 낙시터, 소파제 등
- 해양관광명소만들기 : 공원조성, 출렁다리 등
- 영목항 국가항 승격 및 항포구 기능 보강 : 선착장, 어항시설, 부잔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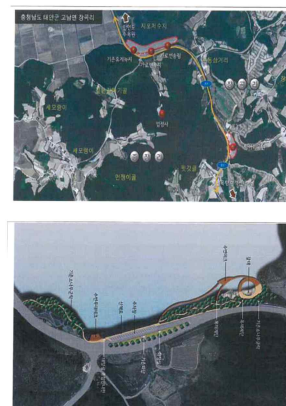
19

5. 건설교통과 계획(2015)

Ⅱ. 안면도 관련 추진정책과 사업

해안관광도로 개설, 구매항 진입로, 지포저수지 생태학습장 등 사업

- 고남면 연결 해안도로 개설 : 영목항 주변 단절지역 도로망
- 구매항 진입로 확보장 : 구매항 낙시 및 관광객 접근로
- 지포저수지 생태학습장 : 탐방로, 전망데크, 수변관찰데크, 주차장, 화장실 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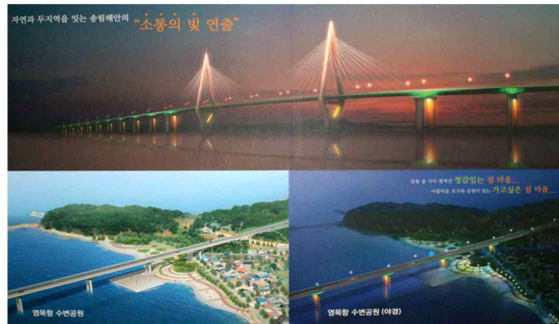
1.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계획

Ⅲ.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1 사업추진 현황

사업개요

- 공사구간 : 보령-태안 영목 14.1Km
- 총사업비 : 5,095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완공예정
- 태안안면도 구산 : 1.7km 사장교 건설



21

1.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계획

Ⅲ.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사업세부내용

1 사업명

- 보령~태안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의 목적

- 바다로 단절된 국도77호선(부산~인천)의 연결
- 장래 서해안시대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
- 교통편의 제공, 물류비 절감, 관광교통수요 대처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3 사업 구간

구분	시점	종점
구간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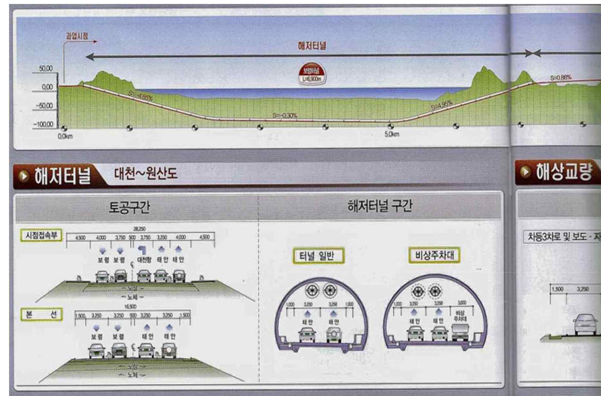
1.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계획

Ⅲ.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 사업세부내용

4 사업 규모

구 분	주요 공사량	
총연장	14.1km	
도로	L=5.40km	폭원 : 16.5m
교량	해상교량 L=1.76km / 17개소	육상교량 L=51m / 4개소
터널	L=6.90km	폭원 : 2@8.50m(일방향 2차로 병렬터널)
구 분	금 액(억원)	비 고
공사비	4,720	
보상비	166	
시설부대비	209	
총사업비	5,095	



23

1.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계획

Ⅲ.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 사업세부내용 : 태안 지역 계획



24

2. 예상되는 문제점

Ⅲ. 연육교 건설의 예상문제점

- 동서간 정주공간의 주민 이동분리와 불편 초래
- 마을 주민 생활권의 분산과 공동체 분산 우려
- 농지의 분리와 농기계 이동의 어려움 발생
- 생태이동로의 단절과 경관 및 생태계의 훼손 우려
- 안면도 지역주민들의 쇼핑과 문화활동이 보령지역으로 유출
- 관광객 지역내 활동의 변화 : 야간관광활동은 대천으로 이동
- 안면도 지역내 동서간 발전에 불균형 발생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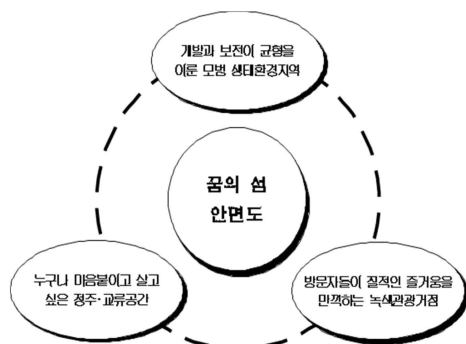
25

1. 안면도 상생발전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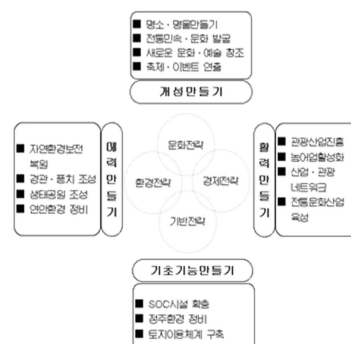
Ⅳ. 태안군의 대응전략

대응전략

- 기존 안면도 종합발전계획(1999년)을 업그레이드 한 안면도 상생발전계획 수립 추진(아래 개념도)
- 관광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광서비스, 환경 등에 발생 문제점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 안면도내 동서간 균형적인 발전계획 마련



안면도개발개념구상도



안면도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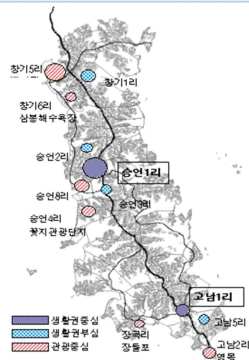
26

2. 지역 정주 환경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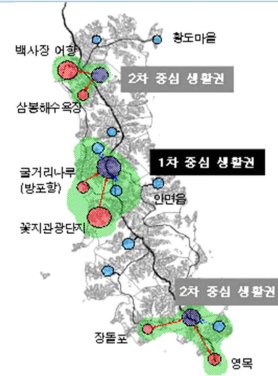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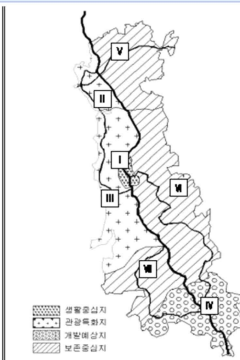
IV. 태안군의 대응전략

대응전략

- 지역주민들간 마을 이동 분리도로에 대한 진단과 이동로 확보
- 마을 분리 및 공동체 훼손 우려지역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연육교 연결지역 및 고가교 지역에 대한 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안면도정주체계 및 권역구분



안면도정주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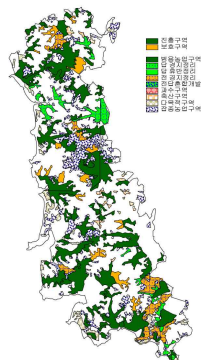
27

3. 농업과 생태의 동서간 연결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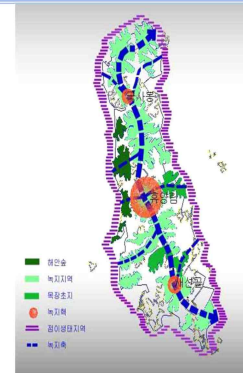
IV. 태안군의 대응전략

대응전략

- 농민 과 농기계 이동 분리지역에 대한 진단과 이동통로 확보
- 도로 동서간 동물 이동통로 단절지역에 대한 생태통로를 적재적소에 조성 : 로드킬 방지
- 도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경관복구 사업 추진



안면도농지이용계획



안면도녹지네트워크구상도

28

4. 지역주민 쇼핑과 문화활동 유출 방지

IV. 태안군의 대응전략

대응전략

- 안면도 관광지 개발(변경 추진예정) 및 태안기업도시내 지역내 상업기반 조성
- 태안읍과 안면도내 문화공간 확충 및 수준높은 문화행사 개최



태안기업도시조감도와
쇼핑몰 사례



태안문화예술회관 및 공연

29

5. 안면도 관광객 체류기반 조성

IV. 태안군의 대응전략

대응전략

- 영목항 해양관광 거점조성 사업과 해양수산물 및 도시교통과의 추진계획 추진
- 영목항 주변 유람선 운항사업 추진 : 호주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주변 사례
- 랜드마크와 전망대는 연육교 연결개발사업으로 추진과 안면도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시드니 유람선 운항



거가대교 진입로 및 휴게소



하남하이웨이파크 사례

30

종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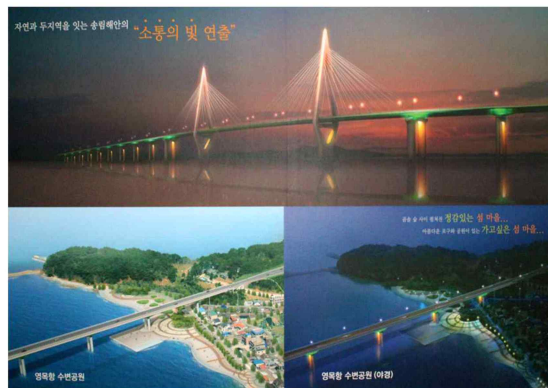
- 태안-보령 연육교의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함
- 이에 태안군 입장에서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대응전략을 마련
- 이에 종합적이면서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문과 관광차원으로 구분한 대응전략이 필요

정책제언

- 안면도 종합발전계획(1999년)의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안면도 상생발전수정계획을 수립함
- 기존 태안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또는 보완을 통한 선택과 집중사업으로 추진
-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보령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발굴과 대응사업 추진
- 연육교 연접 복합휴게공원의 조성 및 안면도 유람선 등 관광객을 체류시킬 수 있는 유치사업 추진

3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2

[태안군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대산항~룡엔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박 인 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대산항-룡연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인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박 인 성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장
2015. 4.3.

1. 문제제기(1/1)

- **중국의 경제성장과 주민소득 증대** → 중국인 출국(out-bound) 관광객 수와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 급속증가추세
-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제주도 등지에 편중되어 있음**
 - 왜 태안에 안오나?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 분석
 - 방한 중국인관광객(游客) 행태 파악
 -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
 - 중국인관광객(游客) 유치전략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15)

1)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

시작단계(1983~1997)

- 홍콩, 마카오의 친척방문 시작
- 1990년대말 한국과 일본 관광방문 허용

규범화 발전단계(1997-2002)

- 출입연계(出入挂钩), 총량통제, 할당관리(配额管理) 원칙과 심사비 준증명(审核证明), 단체 리스트(团队名单表), 대행업소 관리(代办点管理), 인솔자(领队) 인증 등을 포함한 비교적 체계적인 중국관광 관리제도 수립

가속발전단계(2002-현재)

- 2013년 10월부터 '여유법(旅游法)' 시행
- 35조: "여행사는 불합리한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하고 관광객을 유인해서는 안되며, 쇼핑 또는 별도의 비용지불 관광항목 안배를 통해서 리베이트 등 부정부당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2/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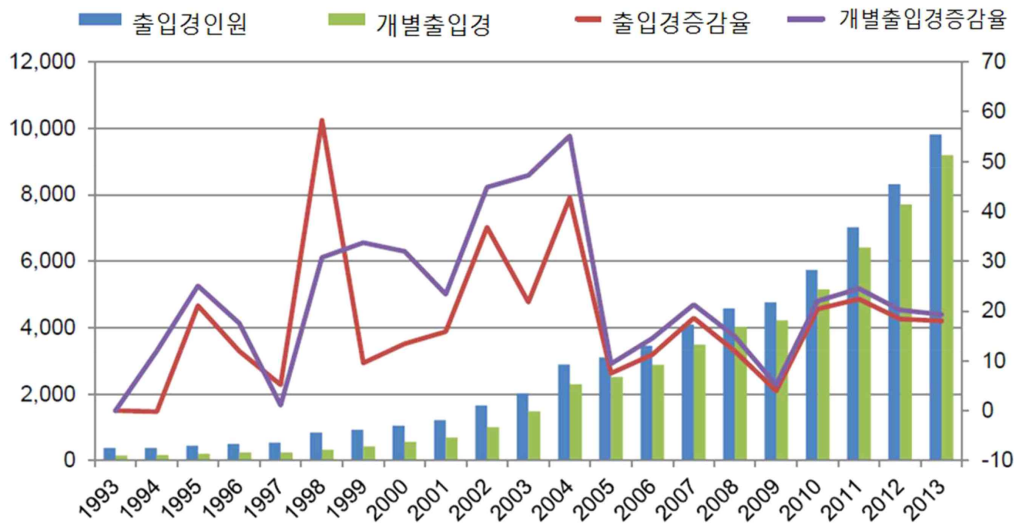
총 인원 수

- 2013년에 9,819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18% 증가
- 중국인 출국관광 총 인원수는 이중 70%는 홍콩과 마카오 방문, 나머지 약 3천 만 여명 중 2014년 613만 명이 한국 방문(2014년)

중국 내 출국관광객 증가 배경

- 인민폐 가치가 중국 내부에선 하락하나 밖에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내관광과 비교한 출국관광의 가격경쟁력 우세
◀ 2013년 인민폐 환율 상승폭 2012년의 3배
- 방문 대상 국가가 중국인 입국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속의 간편화, 인민폐 환율 조정 등을 시행
-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 2011년 200만 돌파후 3년 만에 613만인으로 증가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3/15)



<그림 2-1. 중국인 출국 관광객 증감 동향>

자료 : 중국국민출국관광객소비시장동향조사보고(2014), 6쪽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4/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주요 출발지역(201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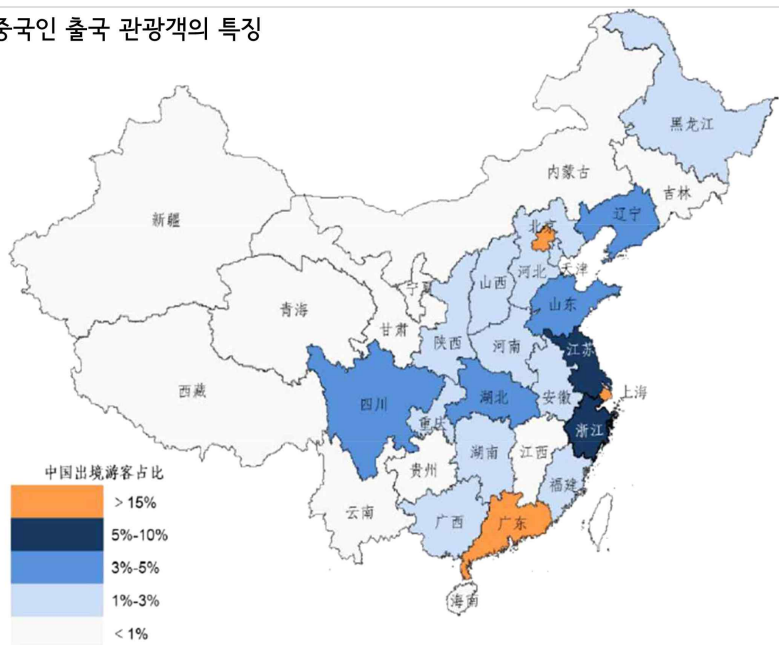
- 주요 출발지는 화남(華南), 화북(華北), 화동(華東)지구에 집중
- 이 중 상하이, 광둥, 베이징의 점유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등 연해지구 성(省), 동북지구의 랴오닝성, 화중지구의 후베이성, 서남지구의 쓰촨성의 점유비중도 비교적 큼

중국 내 출국관광객 증가 배경

- 세계관광도시연합회회원도시 중에서 중국인 출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순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서울과 부산, 일본의 사포로 순임
- 장거리 코스에서는 파리, 런던, 로마, 베를린,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순임.
- 중국인 출국관광객들은 쇼핑과 여가위락 기능을 함께 갖춘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을 (일본, 한국의 도시보다) 더 선호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5/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그림 2-2. 중국인 출국 관광객 성시별, 송출지역 점유비율 분포>

자료 : 중국국제관광관광객수비지향도조사보고서(2014), 2쪽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6/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소득 및 연령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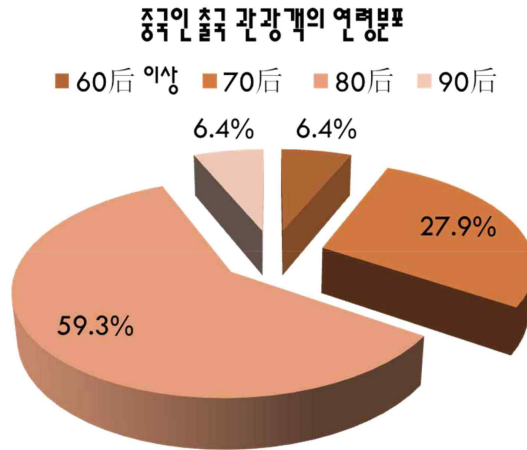
- 방한 중국인관광객 구성상의 특징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연령대로는 36~45세, 개인 월수입은 10,000~15,000위안 사이가 많았음.
- 유럽과 미국 도시로 가는 중국인 출국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연령대로는 26~35세, 개인 월수입은 15,000위안 이상이 많았음
- 중국인 출국관광객 중 1980년대 이후 출생자인 소위 바링허우("80后")의 점유비중이 50%를 초과

주요 관광 목적지

- 세계관광도시연합회회원도시 중에서 중국인 출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순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서울과 부산, 일본의 사포로 순임
- 장거리 코스에서는 파리, 런던, 로마, 베를린,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순임.
- 중국인 출국관광객들은 쇼핑과 여가위락 기능을 함께 갖춘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을 (일본, 한국의 도시보다) 더 선호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7/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그림 2-3. 중국인 출국 관광객 연령분포>

자료 : 중국공민출국관광객소비시장동향조사보고(2014), 11쪽

80년대 생의 비중이 가장 높고(59.3%), 90년대 생 또한 27.9%에 달함.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8/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중국인 관광객의 소득 규모

- 2013년 출국관광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11,512위안으로, 같은 해 중국 내 주요 대도시 및 중등규모 도시 주민의 개인 월평균 소득(3,798위안)의 3배이고, 중국 도시주민 1인당 월소득 평균치(2,246위안)의 5배임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 빈도

- 중국의 중상위 계층 주민 가정에서 출국관광은 이미 가정생활의 주요 이벤트 중의 하나가 되었음.
- 조사대상 출국관광객 중 매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한다고 답한 사람 수가 약 74%였음
- 여행사를 통해서 행선지와 일정을 선택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87.5%에 달했고, 향후 해외여행 시에도 여행사 관광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음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9/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관광방식

- 출국관광 방식 유형별 점유율은 단체관광 37.4%, 자유(개별)관광 31.4%, 반자유관광 18.7%임
- 반자유관광은 최근 수년 전에 출현한 관광상품으로 26~35세 연령대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음.

관광일정

- 한국과 일본 관광일정은 3~5일로 비교적 짧음.
- 여행일정은 6~8일 간, 3~5일간 순이고, 6일 이상 관광일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개인 월수입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로 유럽과 미국 도시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음

지출패턴

-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중 쇼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일반물품 구매 비중이 컸고, 동남아 도시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교통비와 유흥비, 유럽과 미국 도시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숙박, 입장권 구입비, 그리고 사치품과 기념품 구입비 비중이 컸음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0/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여행 시 가장 중시하는 문제

- 교통, 숙박, 음식료

여행 시 가장 걱정하는 문제

- 언어소통, 소지한 금전 안전보관, 문화차이

여행 목적

- 단순관광 > 여가 휴식 > 쇼핑 > 친지 방문 > 비즈니스회의 및 공무활동
- 단체 관광객의 경우 단순관광이, 개별자유여행객의 경우 여가 휴식 및 쇼핑이 다수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1/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여행 시 선호요소

- 1위 : 아름다운 경관, 2위 : 독특한 도시 문화
- 점진적으로 단순관광에서 심도있는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고, 도시의 역사, 문화 및 특색건축 등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건이 되고 있음

한국 일본에서의 선호요소

- 음식과 관광상품 가격, 일상생활용품 등 쇼핑대상 상품의 질과 가격

동남아에서의 선호요소

- 관광상품 가격

미국과 유럽에서의 선호요소

- 유구한 역사, 독특한 문화, 쾌적한 환경, 특색 있는 건축, 박물관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2/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방문 목적지 선호요소

- 1위 : 교통편의성, 2위 : 독특한 도시 문화
- 응답자 중 61.7%가 직항, 크루즈 또는 열차 등이 개통된다면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함

희망하는 관광노선

- 현지의 독특한 문화에 의존한 특색관광 노선(68%), 쇼핑전문 관광노선(61.1%), 인기 연극영화 관련 관광노선(40.0%), 이민답사 관광노선(27.5%), 유학답사 관광노선(20.3%)

비용절감에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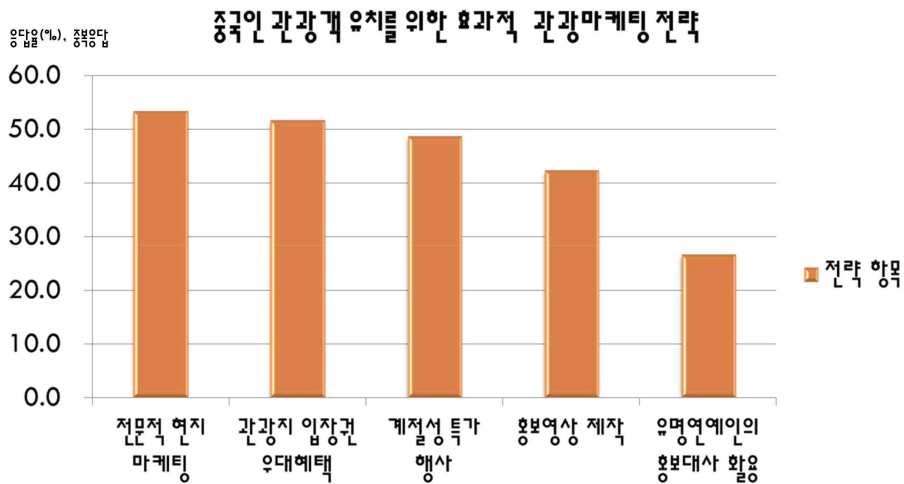
- 52.1%가 세금환불과 할인율 인상을 중시한다고 응답

유효한 마케팅 방법

- 춘절, 5.1 노동절 기간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할 할인과 특혜 활동이 중국인 출국관광객의 한국 방문 붐을 조성하는 데에 효과적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3/15)

2) 중국인 출국 관광객의 특징



<그림 2-4.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 관광마케팅 전략>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4/15)

3)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해외 여행지의 재방문 의사를 지닌 경우 53.6%

- 만족한 경우(매우 만족 :72.9%, 만족:44.5%)
- 불만족한 경우(26.7%)

타인 추천 의사 66.9%

- 매우 만족한 경우 85.4%, 만족한 경우 60.3%가 타인에 추천
- 불만족한 경우 35.1%가 추천

특징

- 유럽, 미국 지역의 만족도 및 추천 의사가 높음
-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 개별 자유여행객의 만족도가 단체패키지에 비해 높음

2. 중국 출국관광시장 환경과 특징(15/15)

4) 정보습득 통로 및 분야

정보습득 통로

- 이미 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친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응답이 49.2%
- 중국 내 관광 사이트, 그 다음이 여행사에 문의 또는 여행사 사이트 검색 순임

정보 검색 분야

- 1) 명승지 정보 2) 숙박과 음식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음식, 명승지, 쇼핑정보 검색
- 유럽과 미국 방문자의 경우에는 교통, 현지풍속과 인심, 안전에 대한 정보검색이 보다 많았음

3. 방한 중국인 입국 관광객 현황 및 특징

3. 방한 중국인 입국 관광객 현황 및 특징(1/3)

1) 방한 중국인 관광객 변화 추세

2000년 이후 급속한 증가 추세

- 2005년 71만 명 → 2013년 613만 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총 수의 43.1%가 중국인

남성 비중은 감소, 여성비중은 급속 증가

- 2005년 남 58.8%, 여 41.2% → 2014년 여 62.5%, 남 37.5% 로 역전
- 순수 관광목적 입국의 경우 여 64.9%, 남 35.1%

연령별 비중, 2, 30대 젊은 층이 가장 큼. 40대도 비교적 높음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젊은 층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50대 이상 장 노년층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추세임.

3. 방한 중국인 입국 관광객 현황 및 특징(2/3)

2) 충남 지역 중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충남과 지역내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낮음

- 충남과 충남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과 장소마케팅 전략 필요

충남의 관광상품 홍보에 충남지역의 중국인유학생 활용 필요

- 중국인 유학생들의 충남관련 체험을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홍보하도록 권장
- 중국인유학생들을 현지 관광통역이나 안내, 해설 등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제안

중국인유학생 부모 대상 “효도관광”상품 운영 제안

- 3-5년 가량의 유학 기간 중, 부모 또는 친지의 한국 방문을 겨냥
- 서울, 제주에 편중된 중국인을 충남으로 유인할 좋은 동기/기회
- “효도관광” 또는 “친지방문”관광상품 추진 시에 한국 방문 비자 발급 관련 절차 간소화 필요

3. 방한 중국인 입국 관광객 현황 및 특징(3/3)

2) 충남 지역 중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테마관광과 체험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

- 김치만들기, 전통시장, 전통음식만들기, 농촌문화 체험 등 충남지역 특성과 연결한 특화된 관광상품이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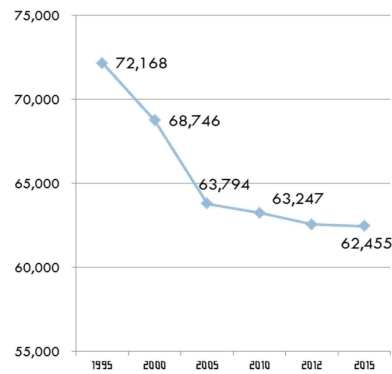
교통여건 개선과 관광객 수용 기반 확충 필요성 제기

-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
- 공항을 포함한 지역간 연결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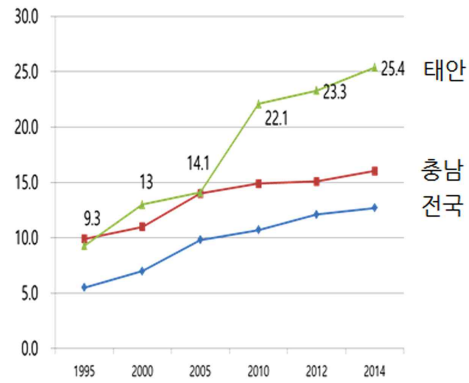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1/5)

1) 태안군 기본 현황



<그림 4-1. 태안군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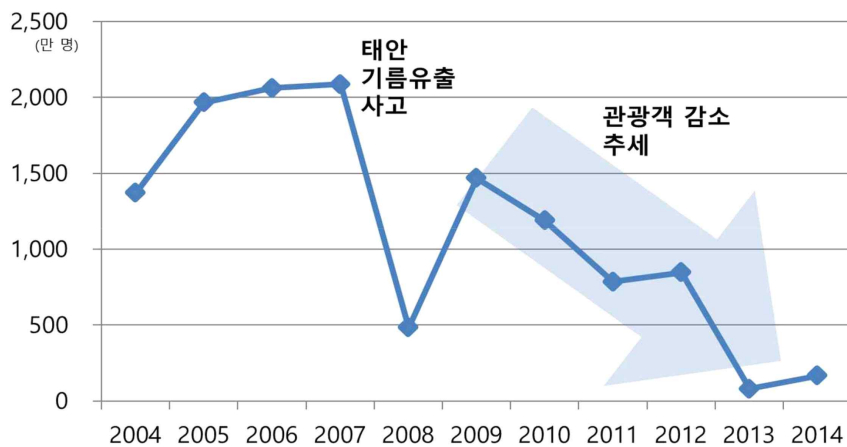
<그림 4-2. 태안군 고령화율 변화 추이>

☞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과 충남도 전체 추세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2/5)

2) 태안군 관광 현황

2-1) 관광객 현황



<그림 4-3. 태안군 관광객 수 변화 추이>

자료 : 관광지식포털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3/5)

2) 태안군 관광 현황 2-2) 관광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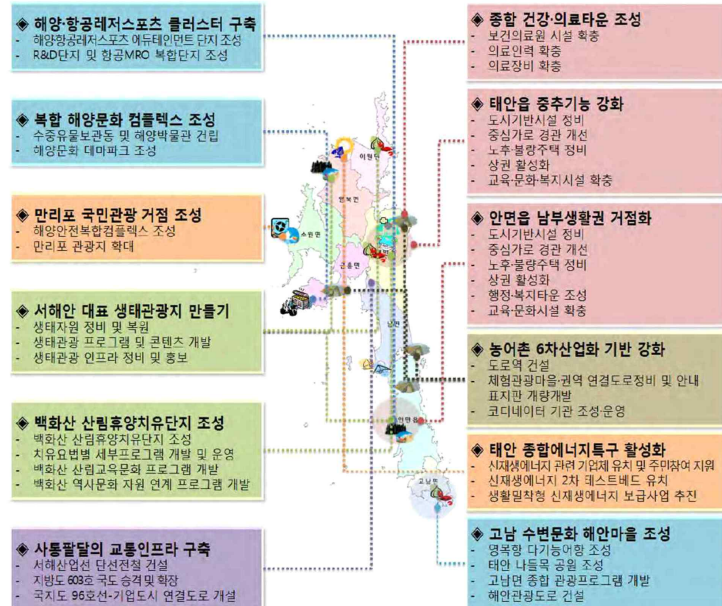
자연자원	문화자원	관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리포, 꽃지, 몽산포, 삼봉, 연포 해수욕장 안면도 자연휴양림 신두리 해안사구 천리포 수목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안마애삼존불, 안홍성, 백화산성 등 문화 유산 주꾸미, 툴립, 해삼, 백합, 연꽃 축제 황토축제, 해변축제 안면도 해님이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핑장, 낚시, 갯벌 체험 프로그램 등 숙박업소와 식당은 상당 수 쇼핑시설 부재 중국인 대상 식당 부재

·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游客 겨냥 '접근성'이 부족하고, 쇼핑, 전문 식당, 관광 안내사 등 游客 겨냥 관광시설 부족

☞ 룡연항-대산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 游客 유치여건 호전 전망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4/5)

3)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12대 핵심 과제



<그림4-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12대 핵심 과제>

4. 태안군 관광 현황 및 과제(5/5)

4) 游客 태안군 유치 강점(S)-약점(W), 기회(O)-위협(T) 요인 분석

외부적 요인 내부역량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游客 증가추세 가속화 서산-룡연항 국제여객선 취항 관광수요의 다변화와 자유 개별관광객 증가 지역낙수 효과 증대 도모 사업 시도 가능성 증대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 지역인구 및 관광객자원 유출 전남-전북 지역 등과 지역간游客 유치 경쟁 심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기업 및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난항
강점(Strength) 수려 청정 자연, 생태, 해양경관 등 우수 관광자원 보유 수도권과 인접 농수산업 결합 가능성 보유	강점-기회 결합과제 대(對)중국 태안 장소마케팅과 지역관광자원 홍보 적극 추진 태안-서산항 연계 교통망 확충 정비 농수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강점-위협 조화극복과제 서산, 당진, 보령 등 인근 도시와 서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두레 등 지역-주민 밀착형 내발적 선도 관광사업 발굴 및 시행
약점(Weakness) 대(對)중국 교류네트워크 기반 취약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관광배후중심도시 활력 및 지역발전 동력 감소 체험형 관광기반시설 부족 교통망 및 연계시설 부족	약점-기회 보완결합과제 대(對)중국 전략적 교류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중저가 체류형 숙박시설 관광두레와 결합 운영 지역관광 및 교통망 확충사업 관련내용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약점-위협 보완극복과제 중국 교류파트너 시현 대상 3농 및 농수산업 6차산업화 체험 연수관광, 상호방문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한 游客 유치 방안 모색 대산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등과 연결도로망 확충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운영

5.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1/6)

- 왜 안 오는가?
- 전략 및 과제설정 기본방향
 - ▣ 충남도와 태안군의 기존 대(對)중국 교류네트워크를 활성화 → 최대한 활용
 - ▣ 주민 일상생활과 연계 가능한 전략-방안부터 점진적 단계적 우선 추진
 - 지역 내 기존관광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자력 추진이 가능하고 신규 투자 수요가 적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
 - ▣ 자금 수요가 큰 대형과제는 중앙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사업화 논리개발 작업 병행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2/6)

1)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선정 12대 과제 재구성

주민생활 연계사업 우선 추진

- 농어촌 6차산업화 기반 강화 →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

중심 및 관광지 배후 도시기능 제공 거점 조성

- 태안읍 중추기능 강화 → 안면읍 남부생활권 거점화

태안 특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해양-항공 레저스포츠 클러스터 구축-복합해양문화 콤플렉스 조성-만리포 국민관광 거점 조성(유류피해 기념관 포함)-고남 수변 문화 해안마을 조성
- 서해안 대표 생태관광지 만들기-백화산 산림휴양치유단지 조성
- 종합건강의료타운 조성

* 기존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3/6)

2) 대(對)중국 충남 장소마케팅과 홍보사업 추진

개별 자유여행객 대상 중국어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

- 중국어판 충남관광홈페이지 구축과 충남여행가이드북 발간, 태안과 태안 소재 관광지를 중국측 교류파트너 시·현 대상으로 홍보
- 충남지역 중국인유학생과 이주민을 활용한 대(對)중국 충남 장소 마케팅과 홍보사업 추진
- 웨이신(微信) 등 SNS 기능 활용을 통해, 여행 인상기와 풍경 및 이벤트 참가, 체험활동 사진 등을 소개, 전파하도록 적극 장려

전략적, 적극적 팸투어 추진

- 중국내 관광관련업자와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추진
- 중국인 유학생의 부모, 친지들을 한국방문 프로그램과 연결, 확대한 “효도 관광”, “친지방문” 등의 프로그램 설계 추진

중국내 교류협력 지방정부와의 관계 적극 활용

-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파트너 성, 시·현과의 관계망(關係網)을 적극 활용, 보완 보강하면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이미지 마케팅과 장소 마케팅 추진
- 충남도의 상하이 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 홍보채널 구축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4/6)

3) 대(對)중국 교류 파트너 시·현지구와 연계한 정책연수관광상품 개발

농촌부문

- 3농혁신과 6차산업, 친환경마을 성공사례 대상 정책연수상품 개발, 테마 체험형 관광상품을 발굴·개발

남색경제 부문

- 태안군 해안관광자원 개발과 산동성이 중점 추진하는 해양(藍色)경제구 개발정책과 연계방안 모색
- 산동성/저장성의 해양 관광정책과 요트 마리나항 개발 관련 분야 공동 이슈 발굴

마을 만들기 부문

- 마을만들기 등 태안군 중점 추진과제 성공경험과 중국의 신 농촌 건설 경험사례 대상 교환방문 통한 상호학습 프로그램 개발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5/6)

4)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과 연계

수도권, 제주도와 연계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 충남에만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많지 않음
- 수도권-충남-제주, 대전-세종-충남-청주 등의 관광거점 지역 및 인접 지역과의 연계 전략이 중요함
- 충남의 해안관광자원육인 태안-서산축을 동서방향으로 당진-아산-천안 축으로 연결하고, 홍성-보령-서천으로 남북 방향 종축으로 연결시키면서 해양경관 및 휴양, 해양헬스케어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에 뿌리를 둔 중국전담여행사 육성

- 관광객 수용시설과 관광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방식 채택
-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실과 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사업 방식과 연계

5.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략(6/6)

安眠岛 ?

- ① “安眠药”
- ② “安眠于此地”

安民岛 !

- 国泰民安

感谢!
Thank you!

토론 _ 1주제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전략]

윤 영 모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충 훈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문

윤영모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07년 유류유출사고 이후, 태안군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침체
 - 연간 관광객수가 유류유출사고 이전(`07) 2,088만 명에서 사고 직후인 `08년 485만 명으로 급감
 - `12년 관광객수는 849만 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현재까지 유류유출사고 이전의 50% 미만에 불과
- 또한 지속적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둔화 우려
 - 태안군 인구는 `95~`02년 간 약 1만 명 감소(`95년 7.2만명, `12년 6.2만명)
 - 고령화율은 `12년 현재 23.3%로 초고령화 단계(전국 평균 11.7%)
-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인접한 내포신도시(홍성·예산) 활성화, 세종시 정부 부처 이전 완료 및 도시활성화 단계 도래, 한국서부발전본사 이전 등 태안군과 관련된 다양한 대내외적 기회요인 발생
- 대내외적 기회를 활용하여 태안군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사업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 필요
- 특히, 태안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서해안 해양·휴양·레저 관광거점화 추진 필요
 - 리아스식 해안, 갯벌, 섬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미항 조성, 국립해양문화박물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거점화 추진
 -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 치유기능 강화, 백화산 산림휴양치유단지(신규) 조성 등을 통해 휴양관광 거점화 추진

- 한서대 비행교육원과 연계한 항공레포츠 및 해양레포츠 육성 등을 통한 레저관광 거점화 추진
- 산재한 관광지 간 연계관광루트 개발 및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일회성 통과관광을 지역체류형 관광으로 흡수
 -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및 코스 개발: 거점 관광지와 주변 소규모 관광지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유사성격의 관광지 그룹핑(grouping)을 통한 테마 관광루트 개발, 관광스토리 개발 등)
 - 관광지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도로망 확충: 남북축인 지방도 603호선(태안-대산, 남북축) 확장 및 국도 승격 추진, 국도 77호선 확장 등을 통해 주요 관광지 간 접근성 제고 및 성수기 교통혼잡도 완화
 - 고품격 숙박 및 리조트 시설 유치: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개발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및 투자여건 조성
- 이 밖에도 태안군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관광객 2,000만명 수준 회복, 서해안 대표관광거점 위상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잠재력 유지·강화 필요

토 론 문

이충훈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영목항 및 주변지역 개선방안]

1. 공간환경 개선 필요성

- 태안-보령 간 연육교 건설에 따라 태안군 최남단에 위치한 영목항 주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영목항 및 주변 인프라는 유입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음
- 영목항 주변지역을 스쳐가는 지역이 아닌 머무는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고, 태안군 남부의 주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방안 필요

2. 영목항 및 주변 개선방안

- 영목항을 다기능어항으로 조성
 - 복합형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광, 레저, 문화기능부여
 - 어항의 브랜드 가치 창출은 어항구역과 그 배후지역을 연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 공간환경에 통합적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환경 개선
- 공간환경 개선 및 기반 조성
 - 이야기가 있는 해안공간, 공공 시설물, 공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환경색채 등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안 경관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안면읍과 태안의 중심지역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거점기능 강화
 - 차별성과 통일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태안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로공간 및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
-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상업 공간 조성
 - 어촌·어항을 문화·레저·수산물 축제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어촌·어항 경관개선

- 어촌경관 : 어촌 지붕형태, 색채, 재질, 주변환경과 조화성 검토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 필요
- 도로경관 : 가로시설물, 도로변 입간판, 도로조경
- 어항경관 : 어항기능시설(등대), 어업기반시설(수협위판시설), 방파제, 야간조명 및 페어선, 페어구 등 어항 환경개선

◦ 상징 관문조성

- 상징관문조성계획에 도로역을 설치, 지역 농수산물 판매, 관광·홍보역할 기능
- 도로역에 로컬푸드, 먹거리, 주차장, 휴식공간, 공공화장실, 주변관광안내시설

◦ 전망대 - 랜드마크 기능

- 주변 섬들과 뛰어난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개방된 휴식공간 조성
- 도입시설 : 전망타워, 전망공간, 산책로

3.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본 어촌·어항의 현황

- 어촌·어항에 대한 관광·여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촌·어항개발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양적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의성·다양성·심미성 등 질적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연안·어촌지역의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어촌·어항기반확충 및 어촌관광 개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어촌·어항 공간의 기능과 역할 또한 다양화·복합화 되어 가고 있음
- 하지만 어촌·어항의 한정된 자원적 여건 속에서 명확한 사용목적과 지향점이 현안 전제되어야만 어촌·어항의 잠재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어촌·어항의 잠재적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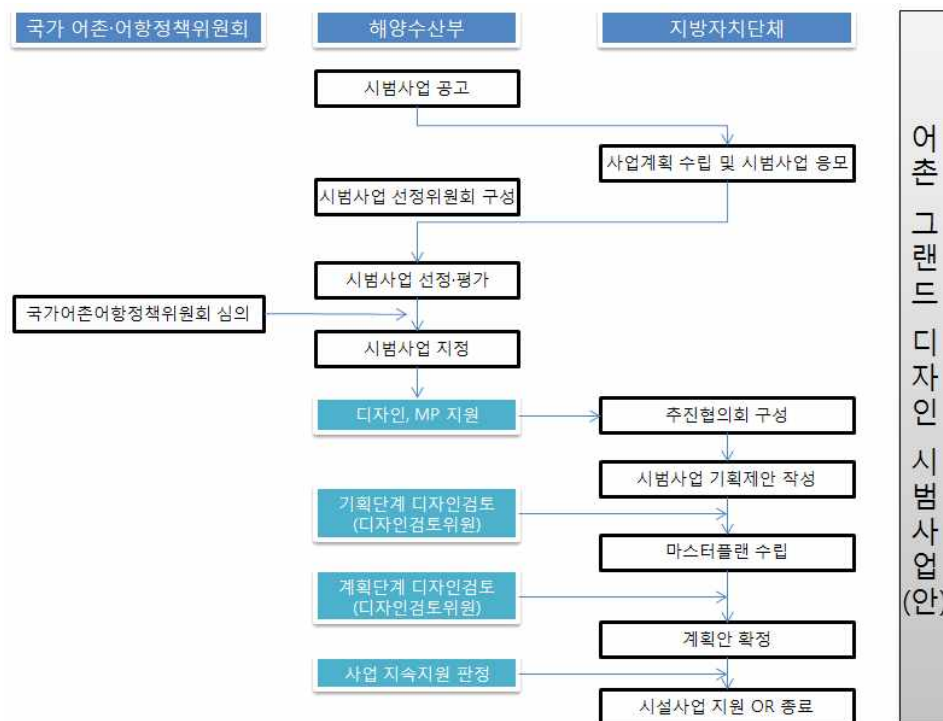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횃집, 콘크리트 방파제,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획일화된 어촌·어항에 차별화된 개성과 문화를 입힘으로써 기존 어촌·어항과는 차원이 다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개념임

- 어촌·어항·어장 공간환경의 공공성 구현을 위해 해양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특성화된 유형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어촌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고유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기반으로 어촌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범사업
-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공공디자인 접근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상향식 공모방식에 의해 계획수립

○ 추진과정

- 공모된 시범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하되, 최종적으로 (가칭) ‘국가어촌어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는 통합적 디자인을 책임질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여 기획제안을 작성하고 기획단계 디자인 검토, 계획단계 디자인 검토를 통해 계획(안) 확정
- 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 지속지원 판정에 따라 시설이 지원되거나 또는 계획단계에서 바로 종료되도록 하여 디자인 가치창출을 위한 높은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함



(표1)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안)

- 어촌 그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간환경에 대한 사인, 옥외광고물, 건축물, 조망, 친수공간, 공공기반시설, 색채, 조명 등을 포함하며, 특히, 재해 안전성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사인	옥외광고	건축물	조망
사인 재료, 사인 크기, 사인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인 색채, 적용 서체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가로, 세로간판, 저주요용광고물, 청문요용광고물, 현수막 등의 규제	자연경관, 지역특성에 따른 높이, 규모, 배치, 형태를 주거용, 상업용에 적용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스카이라인, 통경축, 조망점, 랜드마크 등 지역 브랜드에 적용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	색채	조명
자연경관을 고려한 공원, 녹지, 광장, 친수공간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가로시설물, 방재시설물, 토목구조물, 공급차리시설물, 지역 브랜드에 적용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 브랜드 색채를 선정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범위, 면적, 채도 명도 등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상업용 건축물, 해양수변 조명의 위치, 범위, 밝기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표2) 어촌·어항 공간환경 가이드라인 구성(안)

4.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어촌·어항·어장 등 연안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더불어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발개념과 지침이 될 수 있음
- 개별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어항·어장·연안의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해양디자인과 관련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
- 어촌 그랜드 디자인 사업은 해양의 시각에서 공간, 콘텐츠(생태, 역사, 문화 등), 사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정책에 부합함
- 어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지역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기대

◦ 경제적 효과

- 어촌 그랜드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한 국제적 어촌관광명소 확보 및 기술 수출

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어촌 그랜드 디자인은 연안 공간환경에 어메니티 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전성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의 집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특히, 어촌 브랜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국제관광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

토론 _ 2주제

[대산항~릉엔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 대응전략]

김 영 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김 경 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문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 방한 중국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서울, 제주도에 머물렀던 중국관광객이 점차 지방에 분산되리라 예상되므로 각 지역별 중국인 유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됨
- 최근 중국관광객의 재방문 시장과 개별 관광시장(FIT)이 활성화되고 중국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특화 활동 요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각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특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태안과 충남의 이미지와 요구, 매력도와 만족도 등의 종합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주요 시장지표는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어떠한 지역, 어떠한 목표시장을 설정할지가 중요함. 대산항 여객선 취항을 계기로 동북 연해지역과 젊은 여성층과 30~40대 가족층을 적극 공략하는 방향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입장에서는 생애주기상 성장시장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전략임
- 특히, 한류콘텐츠가 관광매력물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으므로 드라마촬영지 등을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산업관광, 종교관광 등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연계 활용할 수 있다면 상승효과를 촉발할 수 있을 것임
- 중국관광객의 유치는 태안군만의 노력을 통해서만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남 차원에서 연계 가능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대산항을 통해 입출국 하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쇼핑, 음식, 미용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관광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는 기존 시가화된 지역이나 기조성된 관광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
- 미용체험(황토, 갯벌 등 활용), 음식체험(해산물 등 활용) 등을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여 중국관광객 유치

- 대산항은 터미널 기능으로 주변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태안군 중국관광객 유치에는 아무런 효과가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어소통과 교통 불편, 쇼핑의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으므로 터미널과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중국관광객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현재 중국관광객은 서울, 제주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기간과 가격 측면에서 중국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서울 등으로 유입되는 수요를 태안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관광객이 서울 등으로 입국하여 충남과 태안군을 방문할 경우나, 이 반대의 경우, 경로에 따라 관광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 중국관광객을 충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의 인프라와 상품 개발을 일시에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태안 등 주요 방문가능지역을 1차 거점으로 하여 유치 노력을 집중하고 주변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태안에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홍보마케팅 활성화임. 이를 위하여 홍보계획 수립, 전담 인력 및 사업예산 확보가 시급함
- 태안과 충남을 중국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주요 관광박람회 등을 통하여 홍보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며, 중국 현지 언론인, 중국인 유학생 가족(관여도와 구전효과가 높음)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등을 통하여 홍보 확대
- 대산항과의 여객선 운항을 계기로 크루즈 유치에 대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는데, 크루즈는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매력물로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토 론 문

김경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2011년 222만명에서 2014년 61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중국인의 꿈은 집, 차, 여행이다. 중국에는“집에선 아끼고 밖에선 많이 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울연구원(2015년)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평균 지출비용은 1인당 156만원 수준인데, 중국인 관광객은 1인당 23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듯 중국인 관광객은 세계에서 최고의 블루칩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현재 중국의 란딩그룹, 바이통그룹 등이 제주에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관광숙박시설 부족, 외자유치 미흡, 대규모 리조트 미분양 등을 중국의 투자로 해결하고, 관광객 유치 통한 관광수입 증대 등 1석 2조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서해안과 중국을 연결하는 뱃길은 모두 16개다. 이들 뱃길은 인천과 평택, 군산 등 3개 항이 운영한다. 이 가운데 평택항과 룡옌 항을 연결하는 388km의 항로가 최단거리. 하지만 대산항과 룡옌 항의 뱃길이 개통되면 339km로 가장 가깝다. 카페리로 9시간, 쾌속선으로 5시간이면 주파가 가능하다. 승선인원 800~1000명의 여객선과 5000~2만5000t급 화물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거리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지만 아직도 교류와 교역의 양상을 바꿔 놓은 중요 변수다. 충남은 이 항로가 뚫리면 관광객과 물동량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통 후 1년간 21만 명이 오가면서 관광 수입만 1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28만 명이 왕래하고 이 가운데 8만 명은 보따리장수를 포함한 소상공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뱃길 개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의 다른 지역과도 항로를 2, 3개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이럴 경우 2020년경에는 50만 명이 대산항을 통해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태안군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어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태안군의 무슨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보면 태안군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쇼핑 관광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그러면 태안군에서는 어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될 것인가? 바로 증가하고 있는 체류형 개별자유여행객(FIT : Free Independent Traveller)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신흥부유층 관광객 유치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여유연구원(2012)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지출이 일본 등 타 관광객보다 높고, 휴양여행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크루즈여행 및 섬 여행 등 고부가가치상품의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개별자유여행객을 유치를 위해서는 태안군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거대해지는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표적시장 선정이 필요하다. 계층, 지역, 연령대, 성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급레저스포츠 관광자원, 웰빙관광자원 등 태안군의 대표관광자원을 선정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고급 레저스포츠 체험기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안군을 자연과 문화와 인간이 공생하는 힐링 해양레저스포츠관광 목적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단기 핵심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장기 핵심사업은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단기 핵심전략으로는 TV/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전략을 구사로 특히 FIT를 위한 스마트폰용 중국어 오디오 가이드 개발 및 보급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과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 핵심전략으로는 인프라 확충으로 고급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조성, 표적마케팅 정책 추진으로 FIT 전문가 및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 이미지 메이킹 정책, 현지화 정책 등의 전략추진이 필요하다.

